

‘전광석화’ 정청래 “내란당 해체” 언급, 정국 급랭

“아직도尹용호국힘과어찌손잡나”조강경기조

野의원체포동의안“즉시처리”...국힘“야당협박”

일각“대야관계...강경일변도로만안돼”지적도

이재명 정부 첫 집권 여당 사령탑으로 선출된 정청래 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제1야당 국민의힘을 사실상 ‘내란당’으로 규정하고 위헌 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는 상황까지 언급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경선 기간 “내란 세력과 타협·협치·거래는 없다”, “내란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줄곧 말해 온 정 대표는 지난 2일 당선 직후 국민의힘을 겨냥해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들과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선출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추진 여부와 관련 “1088년 5공·광주 청문회와 같은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본다”며 “3대 특검이 수사 결과를 내놓는 순간 내란 정당 해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급속도로 드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거 발의된 법안들도 여야 관계의 혐로를 예상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앞서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해 온 정 대

표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다른 의원들도 내란법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한 무더기 제명 촉구 결의안 등도 발의한 상태다.

그는 또 특검 수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과거 통합진보당이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일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소위 1호 당원인 윤석열이 직접 내란을 일으켜 파면됐는데, 국민의힘이 단절하려면 윤석열의 내란과 탄핵 반대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여야 간 입법 충돌은 ‘검찰·언론·사법 개혁’ 관련 법안이 될 전망이다.

당장 4일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한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올라간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태여서 정 대표 체제에서의 첫 본회의에서부터 국민의힘과 충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 대표가 쟁점 법안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공언한 것도 여야 간 긴장도를 고조시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이른바 ‘3대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를 주도한 것처럼 당 대표로서도 절대 다수 의석수를 토대로 국민의힘 등이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이 서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즌 2로 불리는 자정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속도전도 이미 예고한 상태다.

정 대표는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는 검찰 관련 4법에 대한 올해 추석(10월6일) 전 처리 방침을 이날 재확인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당내 테스크포스(TF)도 즉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대표가 강경 일변도로만 야권과의 관계를 형성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관측도 없지 않다.

야당 시절과 달리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보폭을 맞춰 국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국힘의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진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전남 나주시 노안면 오이농가를 찾아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黨心の 반탄이나, 民心の 찬탄이나...국힘 당대표 컷오프 주목

예비경선서 5명 중 1명 탈락...7일 발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가 1차 판문인 예비경선(5-6일)을 통과하기 위해 3일 총력 득표전을 벌이고 있다.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가 각 50% 반영되는 이번 예비경선에서 1명이 탈락하는 가운데 이른바 찬탄(탄핵 찬성) 측 후보는 민심을 겨냥한 쇄신을 주장하는 반면, 반탄(탄핵 반대) 진영은 당심을 토대로 ‘강한 야당론’을 띄우는 모습이다.

반탄파 선두 주자인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에 맞서 ‘잘 싸우는 대표’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현 정부를 ‘반미·친북 정부’라고 주장하면서 강성 지지층을 향해 러브콜을 보냈다.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는 찬탄파와 적극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다.

장 후보는 찬탄파 후보들의 인적 쇄신 주장을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든 ‘내부 총질’로 규정하

면서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난달 31일에는 이른바 ‘윤 어게인’의 상징인 전한길 씨 등 보수 성향 유튜브들이 개최한 토론회에 당권 주자 중에는 유일하게 출연했다.

반면 찬탄파 주자들은 반탄파 세력이 대표가 되면 보수 쇄신은 물 건너가고 나아가 정당 해산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온건 지지층과 함께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연일 민심 행보를 이어가며 반핵심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 국민의힘이 해산 정당인 통합진보당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조경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인적 쇄신을 띄우면서 안 후보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초선으로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 주진우 후보는 양쪽 진영 모두를 비판하며 무게와 중도 노선 후보임을 자임하고 있다.

1975년생으로 당권 주자 중 최연소인 그는 ‘세

대교제’와 ‘개헌 저지선 수호’를 내세워 제3지대 전략을 취하고 있다.

예비경선 결과에 따른 주자 간 구도 재편이 본 경선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당 안팎에서는 현재까지는 반탄파가 당권 레이스 초반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보는 분위기가.

김문수 후보의 경우 두 달 전 대선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대선 후보로 선출된 만큼 그 기세를 이어 최근 각종 당권주자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장동혁 후보도 무난히 예비경선을 통과할 것이라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대외 공세의 선봉에 섰던 그는 ‘전투형 대표’ 이미지를 구축하며 당심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당원 투표가 80%(일반 여론조사 20%)나 반영되는 본선과 달리 예비경선에는 민심도 절반이 반영되기에 쇄신과 후보들의 선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예비경선 결과는 7일 발표된다.

/연합뉴스

“호남인에 보답해야겠다는 마음 갖고 있어”

정청래 대표 첫 일정...나주 수해 복구 현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서삼석·신정훈·주철현·박균택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전남 나주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호남의 발전을 위해 정청래 체제에서 뭔가 호남인들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남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첫 일정으로 이날 오전 첫발인 호남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수해 현장에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를 언급한 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 민주화에 대한 헌신과 봉사, 희생에 대해 보답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들 하는데, ‘국가가 호남의 경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줬는가’라는 한 가지 초단체장의 말씀이 가슴 속에 남아 있다”며 “호남인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호남으로 첫 일정을 잡고 싶었다”고 덧붙혔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호남 지역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아 호남에 머물면서 선거 운동을 이끌었다. 이번 전대 기간에도 수해 피해가 집중된 호남 지역을 수차례 찾아 복구 활동에 매진하는 등 텃밭 당심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

이날 운영대 나주시장은 “지난달 16-22일 나주에 내린 비로 9천200천·147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 대표가 첫 공식 일정으로 나주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것에 대해 “얼마 전 큰 호우피해를 입은 전남을 찾아 수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던 모습이 기억에 선명하다”면서 “당대표 첫 공식일정으로 나주 수해복구 현장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으며 각별한 전남 사람이 느껴진다”고 전남지역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시원·나주=김영수 기자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지도자 1·2급과정 교육 희망자 모집

교육과정			
2 급 지도자 과정	28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1 급 지도자 과정	36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초급완성반과정	12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15회	1:1지도/3회 사전예약
초급원포인트과정	6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6회	1:1지도/2회 사전예약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합격시까지 그 외 비용 일체 없음
※ 접수 즉시 이론교재 및 예상문제지 배송 실기실습/실내실습장 합격시까지 무료교육
교육시간 평일(토)오전 09시~ 오후 19시까지(일)/휴무
접수문의 T. 062-369-0070 M. 010-9163-7897
접수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772601-01-794141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